

지역 소식통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최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12일 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등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날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현상에서 전력을 다해 맞서고 있는 의료업종사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를 표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본 사태가 조속히 종속될 수 있도록 맡은바 자리에서 조금 더 협조주시길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6일간이며, 오는 17일 까지도.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농약안전보관함 공모사업 선정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사)한국자살예방협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아직도 농약 음독이 높은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촌 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을 통해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여 음독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는 자살 예방사업으로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9개마을 496개를 보급하였고 올해도 300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관함 보급사업은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농약을 보관함으로써 충동적으로 농약을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고 농약을 피로 회복제나 부침가루 등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것을 막아준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

친환경 신시가지·마리나항만 복합단지 조성 7000억원 규모 17개 사업 실행계획 마련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12일 허전 부시장 주재로 국소실과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 사업 실행 로드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어 새만금의 접근성 및 물류 수송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됨에 따라 김제시가 선제적 조치로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도출된 7,302억원 규모 17개 개발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발사업은 △첨단 농업기계 드론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신시가지 도시개발 △사계절 체험 테마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마리나항만 및 복합단지 조성 △로

컬푸드 판매 및 전시관 조성 등이다. 허전 부시장은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 사업이 실행력과 지속성을 갖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여건상 당장 실행이 어렵더라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시는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정비하여 국토교통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과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에 포함 시키고, 국가공모사업 및 정책사업에 반영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진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원들과 함께 진봉면을 방문할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새만금 바람길 경관을 제공하고자 유채꽃 모종을 심는 시간을 가졌다

봄이 오는 '새만금 바람길'

진봉면 주민자치위원회, 유채꽃 아름다운 '명품 마실길' 조성

김제시 진봉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두환)는 회원들과 함께 2020년 진봉면민의 날과 2020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와 연계하여 진봉면을 방문할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새만금 바람길 경관을 제공하고자 유채꽃 모종을 심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 바람길'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감상하며 천년고찰 망해사 등 주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김제시의 대표적 마실길이다.

지난 2월에는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바람길 유채꽃 식재를 위한 유채꽃 묘를 식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난 12일에는 약 한달동안 잘 자란 유채꽃 모종을 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유채꽃 모종심기는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보리밭축제와 연계하여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더 많은 볼거

리와 진봉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기에 회원들의 열정이 넘달랐다.

이울러 진봉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임영택)에서는 진봉면민의 날과 2020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3월9일부터 20일까지 보리밭축제 대행 용역 공고를 시 홈페이지 및 진봉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26일날 풍경을 통해 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면장은 "이번 진봉면민의 날과 보리밭 축제는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보리밭 축제가 진행될 경우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코로나로 위축된 어르신 마음까지 돌본다

돌봄 대상 어르신에게 매일 전화 상담·코로나19 정보 전달 진행 관내 화훼농가 구입 화분 1300여개 전달 등 적극적 정서 지원 실시

완주군이 코로나19 여파로 노인들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1회이상 전화 상담에 이어 정서지원까지 나서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2일 완주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가 최소화됨에 따라 직접 방문은 지양하고, 돌봄 대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전화 상담을 진행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노인맞춤돌봄 5개 수행기관을 활용해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제공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외출 자재로 소외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기 쉬운 어르신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심리적 지원에

도 나서고 있다.

5개 수행기관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관내 화훼농가를 통해 화분 1300여개를 구입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침체된 화훼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르신들의 정서함양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완주군은 관내 전역에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상생활지원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광역알뜰교통카드' 교통비 30% 절약

완주군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완주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까지 걸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지급한다. 여기에 카드사가 추가로 약10%의 할인(카드사별 조건 충족시)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마일리지는 1일 최대 800m 이동 시 250원, 월 최대 1만1000원(44회)까지 적립 가능하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두배로 적립된다.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 청년(19~34세)에 대해서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의 마일리지로 추가로 지급된다. 단,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에만 적립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희망자는 완주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http://www.akard.kr/)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고, 마일리지 앱을 다운로드 설치하면 된다. 카드 사용이나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할 수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지역문화예술회관 기획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3천 만을 확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은 지역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시

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라북도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연계 3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국악과 트로트, 7080 포크 콘서트를, 중장년층에게도

퍼포먼스와 뮤지컬, 합창과 커버댄스를! 장르 구분 없이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일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일정 변경 등으로 향후 김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www.ginje.go.kr/art)에 공지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만경읍 '여성농업인 상생카드' 신청 접수 실시

김제 만경읍은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복지향상, 문화·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상생카드'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해당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된 만성 질환 예방과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다.

신청 대상은 실제 영농 종사 여성인으로서 만 2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1946. 1. 1. ~ 1995. 12. 31.)인 자이며, 단 만 20세 이상부터 만 24세(1996. 1. 1. ~ 2000. 12. 31.)는 기혼자인 자에 한 한다. 단 타 분야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전업적 직업보유자, 문화

누리카드 등 유사복지 서비스 수혜자, 농지소유면적 5ha 이상 농가, 영농경력 1년 미만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 후 선정 대상자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의 발급 편의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1인당 연간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스포츠용품과 수영장, 펜션, 민박, 목욕탕, 서점 등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최병인 만경읍장은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가사노동과 고된 농어업 일로 지친 심신을 문화활동으로 인해 여유 갖고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많은 여성농업인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